

홍종학 장관 “군산경제회복 기업유치 필요”

농업우수 관리 자동화시스템 구축

군산 찾아 “중기 혁신제안서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갈 것” 중기 대표 애로사항도 청취 전주남부시장 등 방문해 상인대표들과 간담회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GM공장의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를 찾았다.

이번 군산 방문은 지역상황과 정부가 발표한 지역대책의 집행현황을 점검, 협력업체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홍장관은 지난 7월 20일 군산에 문을 연 기업비즈니스센터(전북테크노파크 군산분원)를 찾아 운영 현황과 지역 상황을 보고받고 위기지역 소재 자동차, 조선산업 관련 전, 후방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군산과 전주를 방문했다. 사진은 군산에 위치한 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고 있는 모습.

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한 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 One-stop Package 지원하고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애쓰는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사업전환, 관로다각화 등 실질적 지원이 이

투어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 장관은 GM협력사인 창원금속공업(주)을 찾아 자동차, 조선업 분야의 중소기업 대표 7명과 간담회를 했다.

홍 장관은 “군산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대체, 보완 산업 발굴과 기업유치가 필요하고 중소기업들이 혁신적인 제안을 하면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GM과 현대중공업의 사업장 철수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 참여기업들은 기업 자금난과 관료개혁 등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

홍 장관은 “정부에서 4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 지역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집행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이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예산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장관의 전북 첫 방문이 군산이라는 점은 위기지역에 대한 우리 부의 지원의지를 밝힌 것”이며, “지속적인 협력기업 실태조사, 현장동향 파악, 건의사항 수렴 등을 통해 군산경제가 활기를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종학 장관은 전주남부시장을 방문, 추석대목 준비에 바쁜 전통시장을 점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상인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폭염, 폭우 등으로 이번 여름 장사가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은 시설 개보수와 관련 좋은 사업계획을 제시해 주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장관은 청년몰을 방문해 청년상인들을 격려하고 11월중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김영태 기자

농어촌공 전복분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종만)는 주요 수원공, 용수간선 등 농업기반시설에 정보기술(IT) 및 유,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중앙관리소에서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관리, 물관리 비용절감 및 용수배분의 합리화를 위해 농업우수관리자동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전북관내 농업우수관리자동화사업 구축현황은 수혜면적 99천ha의 259개 농업기반시설물에 원격감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완료됐으며 한국농어촌공사 김제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관할 농업기반시설물을 대상으로 광역화 전북 1지구 농업우수관리자동화사업을 시행 중이다.

사업내용은 4개 시군 일원에 국비예산 84억2000만원을 2020년까지 투자해 수혜면적 6,975ha의 현장 원격소 375개소(저수지 72개소, 양, 배수장 165개소, 수로부 수문 138개소)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시,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관할 농업기반시설물을 대상, 광역화 전북 2지구 농업우수관리자동화사업이 금년도 신규지구로 선정되어 실시계획을 진행 중이며, 사업내용은 5개 시군 일원에 국비예산 80억7000만원을 2022년까지 투자해 수혜면적 1만905ha의 현장 원격소 213개소(저수지 48개소, 양, 배수장 22개소, 수로부 수문 143개소)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역화 사업을 통해 기존의 저수 단위의 중앙관리소의 정보를 최신의 ICT기술을 활용해 전북본부로 통합, 양·배수장 및 저수지, 수문 등 농업기반 시설물에 대해 원격측정, 원격제어가 가능토록 정보통신망을 추가적으로 구축한다. /김영태 기자

고향에서 전기걱정없이 추석을 보내세요

한전 전북, 배전종합상황실 운영

한전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정은호)는 도내 고객들이 가족과 함께 고향에서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추석 연휴 배전종합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한전은 전 배전선로에 대한 특별 순시, 고장 예방 특별 점검 활동을 실시, 추석 연휴동안에는 설비관리 부

서 간부를 비롯하여 배전센터원, 배전운영실 비상근무자, 협력회사 종사원 등, 총 12명을 당일 근무자로 하는 24시간 대기조를 편성,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주간에 걸쳐 정전 예방을 위해 주택 밀집 지역과 공공시설의 배전 선로 점검, 각종 공사장 위해 개소 조치, 자동 개폐기 일체 점검 등을 한다.”며, “보수 인력과 장비의 긴급

동원 체제를 갖추고 비상 자재를 확보하는 등 만일의 경우에도 신속한 긴급 복구가 가능토록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0여 대단위 아파트에 대해서는 고객 소유 전기설비의 사전 점검으로 파급되는 정전을 예방, 신속한 복구 태세 확립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고 해당 고객들이 불시 정전에 대비해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상의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17일 전주 신중양시장 일원에서 전주상공회의소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이용촉진 캠페인’을 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계수용품 구입과 선물준비는 전통시장을 이용하자’는 가두캠페인을 매년 전개, 이날 역시 행사에 참여하여 장보기를 한 물품 전부를 독거노인, 장애인 가족 등 관내 소외계층 80세대에 기부하여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선홍 회장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만큼 모두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한은 전북본부, 7월 도내 금융기관 여신 발표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2018년 7월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신’을 발표했다.

17일 전북본부에 따르면 금융기관 여신이 전월보다 증가(+249억원→+2,743억원)했다.

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은 증가(-1,454억원→+960억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폭을 유지(+1,703억원→+1,783억원)했다.

기업대출은 증가(-543억원→+2,511억원), 가계대출은 증가폭 축소(+489억원→+3억원)했다.

전북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전월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3,347억원→1,812억원)했다. /김영태 기자

예금은행은 감소(+1,295억원→-6,431억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증가폭 확대(+2,052억원→+4,619억원), 신용보증은 7월중 신용보증기관 보증은 전월보다 감소폭 축소(6월-65억원→7월-10억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 도소매업, 기타업종 보증은 증가한 반면 제조업 보증은 감소, 자급사정은 7월중 어음부도율은 전월보다 0.85%p 상승(0.33%→1.18%), 7월중 신규 부도업체수는 2개로 조사됐다.

7월말 예금은행 대출연체율은 전월보다 0.03%p 하락(0.64%→0.61%)했으며 7월말 예금은행 예대율은 전월보다 4.4%p 상승(97.5%→101.9%)했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순창 풍산면에

‘JB희망의 공부방’ 74호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17일 순창군 풍산면에 위치한 풍산지역 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74호’를 열었다.

이날 오픈식에는 전북은행 이영태 시외지역금융센터장, 김봉량 순창지점장, 황숙주 순창군수, 정동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무처장, 이은영 풍산지역아동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풍산지역아동센터는 2007년 개소 후 주변일대 아동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노후화된 센터 내 환경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김영태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 사룻데 봉사단은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전북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사랑의 한 끼 나눔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따뜻한 밥 한끼 드시고 건강하세요’

롯데백 전주점, 전북노인복지관 나눔 배식 봉사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조환섭) 사룻데 봉사단은 한가위를 앞두고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전북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사랑의 한 끼 나눔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 홀로 지내실 어르신 260여명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의미로 배식활동 참여, 후식으로

는 송편과 유과를 준비, 따뜻한 마음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했다.

사룻데 봉사단 관계자는 “작지만 작은 정성으로 추석이 조금이나마 따뜻해졌으면 하는 훈훈한 마음과 함께 민족 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자 릴레이 사랑의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는 www.jjmaeil.com 에서 제공됩니다.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